말이 되는 말

하느님께서 소를 만드시고 소한테 말씀하셨다.
“너는 60년만 살아라. 단 사람들을 위해 평생 일만해야 한다.”
그러자 소는 30년은 버리고, 30년만 살겠다고 대답했다.
두 번째로 개를 만드시고 말씀하셨다.
“너는 30년만 살아라. 단 사람들을 위해 평생 집만 지켜라.”
그러자 개는 15년은 버리고, 15년만 살겠다고 대답했다.
세 번째로 원숭이를 만드시고 말씀하셨다.
“너는 30년만 살아라. 단 사람들을 위해 평생 재롱을 떨어라.”
그러자 원숭이도 15년은 버리고, 15년만 살겠다고 대답했다.
네 번째로 사람을 만드시고 말씀하셨다.
“너는 25년만 살아라. 너한테는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겠다.”
그러자 사람이 하느님게 말했다.
“그럼 소가 버린 30년, 개가 버린 15년, 원숭이가 버린 15년을 다 주세요.”
그래서 사람은 25살까지는 주어진 시간을 그냥저냥 살고, 26살부터 55살까지는 소가 버린 30년으로 일만 하면서 살고, 퇴직 후에는 개가 버린 15년으로 집만 지키면서 살고, 그 후에는 원숭이가 버린 15년으로 손자 손녀 앞에서 재롱을 떨며 살게 되었다고 한다.